

[예술상을 점검한다] - 무용

한국의 무용예술상이 달라지고 있다

장광열
춤평론가

한국의 문화예술지원제도는 문예진흥원의 문화예술위원회로의 전환을 기점으로 그 거품이 점차적으로 거두어져야 한다. 문화예술계, 무용계도 예외가 아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해 화제가 된 '올해의 예술상' 은 반드시 보완책이 뒤따른 후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 무용예술상 현황

우리나라의 무용예술상은 한국무용협회, 한국발레협회, 한국춤평론가회, 한국현대무용진흥회, 한국현대무용협회 등 각종 무용관련 협회와 대한무용학회, 한국무용과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학회, 한국발레연구학회, 한국미래춤학회, 한국무용예술학회, 한국무용사학회 등의 학회들, 그리고 무용전문지인 『몸』, 『춤과 사람들』, 공연예술전문지인 『공연과 리뷰』 등의 예술잡지에서 수여한다.

주최 기관마다 상의 이름이 다르기는 하지만 내용상으로 본다면 크게 작품상(예술상), 안무상, 무용가상, 학술상, 평론상 등으로 분류되어진다. 옛날에는 주로 작품상과 안무상에 많은 비중을 두었다면, 요즘에는 무용가 자체를 조명하는 무용가상이나 무용연기상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무용을 이론적으로 고찰하는 학술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학술상과 평론상 등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의 무용예술상은 한국무용협회, 한국현대무용협회, 한국현대무용진흥회, 한국무용학회에서 수여하는 상을 제외하고는 주로 1995년을 전후로 제정되었다. 지금까지 존속하고 있는 무용상 중 가

장 역사가 오래된 상은 사단법인 <한국무용협회>가 1964년에 제정한 무용대상으로 역대 수상자에게는 한영숙, 이매방, 김문숙, 최희선, 한순옥, 조광, 육완순 등이 있다. 이 협회는 공로상도 함께 선정하는데 조택원, 신관철, 김동은, 설수석, 김덕임, 백경원, 정양자, 정영래, 이미숙, 양동주, 김기백 등이 수상하였다. 주로 협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며 별도의 상금 없이 상패만을 수여한다.

한편 우리나라에 현대무용을 본격화시키기 위해 창립된 <한국현대무용협회>는 현대무용의 창시자 이사도라 던컨이 그리스 신전 앞 코파나스 언덕 앞에서 공연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해마다 '코파나스상' 을 수여하고 있다. 1984년에 제정되어 2004년 올해의 예술상(무용) 최우수 선정작품을 수상한 김윤규 무용단의 「숫나기」



<표 1> 한국의 주요 무용예술상

주최	내용
대한무용학회	학술상, 예술상, 평론상
월간 『몸』	무용예술상 - 작품상, 안무가상, 무용연기상, 무대예술상, 무용평론가상
월간 『춤과 사람들』	평론상, 예술상
계간 『공연과 리뷰』	PAF 예술상, 안무상, 연기상
한국무용과학회	공로상, 학술연구상, 최우수논문상
한국무용교육학회	무용학술상, 무용연구교사상
한국무용학회	무용대상, 무용예술가상, 국제무용학술논문상, 최우수논문상, 무용교육자상, 젊은 무용가상
한국무용협회	무용대상, 공로상, 특별공로상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올해의 예술상 무용 부문
한국발레연구학회	한국발레아카데미상
한국발레협회	한국발레협회상 - 신인상, 프리마 발레리나상, 당쉬르 노브르상, 신인안무가상, 扶然 전성숙여사상, 작품상, 공로상, 무용가상, 대상
한국춤평론가회	춤비평가상, 특별상
한국현대무용협회	코파나스상, 신인상
한국현대무용진흥회	최고 무용가상, 젊은 안무가상, 이사도라 무용예술상, 무용교육자상, Dancer's Heart Award

제21회를 맞이한 '코파나스상' 은 전국에서 1년 동안 가장 활발하게 작품활동을 한 현대무용가 한 명을 선정하는데, 역대 수상자에게는 안신희, 하정애, 최청자, 이숙재, 박일규, 남정호, 김소라, 임지형, 한선숙, 정귀인 등이 있다. 이 협회는 '신인상' 도 선정하여 전북대 출신의 김원과 한양대 출신의 이혜준 등을 발굴하였다.

또한 현대무용가 육완순이 이사장으로 있는 <한국현대무용진흥회>는 1985년부터 여러 가지 무용상을 제정하였다. 작품제작, 후진양성, 이론연구 등에서 창조적 정신을 발휘하여 우리 현대무용 발전에 공헌한 무용가에게 주는 '이사도라 무용예술상' (하정애, 구본숙, 박명숙, 박인숙, 이숙재, 이정희, 김화숙, 최청자, 양정수 등 수상), 우수한 안무력과 기량을 표창하는 '최고무용가상' (이윤경, 류석훈, 신종철, 김원 등 수상)과 함께 '젊은 안무가상', '무용교육자상', '공로상' 등을 수여하고 있다. 또한 2001년부터는 무용 비전공자로 무용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자에게 주는 '댄서스 하트상

(Dancer's Heart Award)을 제정하여 이종덕(전 세종문화회관 총감독), 차범석(연극인) 등에게 수여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처음 제정된 <한국무용학회>의 2004년 무용상은 무용대상(박명숙), 무용예술가상(박인자, 강미선), 국제무용학술논문상(김운미), 최우수논문상(장선희), 무용교육자상(안병순), 젊은무용가상(김승일, 이경은, 정미란) 등 6개 부문에 걸쳐 수여되었다.

이 밖에 권위 있는 무용 상으로 사단법인 창무예술원과 무용전문지 『몸』지가 함께 주관하는 '무용예술상' 이 있다. 1993년에 처음 제정된 무용예술상은 해당 연도에 발표된 작품과 왕성한 활동을 벌여온 국내 무용예술가들을 대상으로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춤 문화진흥에 기여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작품상, 안무가상, 무용연기상, 무대예술상, 무용평론가상을 선정하고 있다.

조동화, 정병호, 김영태, 정순영, 이병욱, 이종호, 김태원, 김채현, 김경애, 장광열, 성기숙 등의

〈표 2〉 무용예술상 세부내용 (주최 : (사)창무예술원, 『몸』지)

회수	년도	작품상	안무가상	무용연기상	무대예술상	무용평론가상
제1회	1993	군자무(최현)	정귀인	김희진	-	-
제2회	1994	명성황후(국수호)	강미리	강수진	-	-
제3회	1995	또 다른 고향(김민희)	박은화	김은희	-	-
제4회	1996	류-생명의 나무(강미리)	홍승엽	김현자, 한금련	-	-
제5회	1997	황토누리(박재희)	김순정	김지영	-	-
제6회	1998	자연인(이정희)	제임스전	문훈숙	-	-
제7회	1999	시간속으로(홍신자)	안애순	이원국	-	-
제8회	2000	아우라지(김선미)	홍승엽	이윤경	한진국	-
제9회	2001	달그림자(박인자)	전미숙	박선희, 신은주	엄귀선	김남수
제10회	2002	수퍼스타 예수그리스도2002(육원순)	김현자	임혜경, 최진욱	서양범	-
제11회	2003	백설공주(제임스전)	조성희	정세훈, 박소정, 김주원	정진덕	허명진
제12회	2004	선택(안성수)	김은희	장현수, 엄재용	김기영	-

무용평론가들로 구성된 〈한국춤평론가회〉는 당해 춤계의 흐름을 진단하며 ‘춤비평가상’과 ‘특별상’을 제정하고 있다. 심사는 한 해 동안 비교적 활발히 활동한 안무가들을 추천한 후 그들을 중심으로 토론을 거쳐 이루어진다. 1996년 제1회 춤비평가상 수상자에 현대무용가 전미숙을 시작으로 제2회 김화숙(편애의 땅), 제3회 국수호(티베트의 하늘), 제4회 안애순(은 타임), 제5회 최상철(까망천사), 제6회 안성수(시점), 제7회 김현자(그 물 속에 불을 보다), 제8회 김영희(내 안의 나), 그리고 2004년도 수상자인 김윤규(숫나기)에 이르기까지 작품을 통해 독특하고 신선한 예술세계를 표현한 안무가들이 선정되었다. 특별상에는 서울예술단, 유니버설발레단 등이 선정된 바 있으며 특히 2004년도에는 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의 중요성을 알리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무용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무용교육발전추진위원회가 선정되었다.

2004 춤비평가상에 선정된 김윤규의 작품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주최하고 국무총리 복권위원회와 문화관광부가 후원한 ‘2004 올해의 예술상’

무용 부문에도 선정되었다. 이번에 처음 신설된 올해의 예술상은 한 해 동안 우리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예술작품 중 창의성과 실험정신이 돋보이고 문화적 완성도가 높은 작품을 선정하여 시상되었으며, 최우수 작품 1편에 5천만 원, 우수작품 2편에 각 3천만 원의 시상금이 주어졌다. 우수상에 지명되었던 (씨아프리카)의 홍승엽이 수상을 거부하여 화제가 되기도 한 ‘올해의 예술상’은 예술계에서 보편적으로 준용되는 예술성, 참신성, 양식적 완성도, 보편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된 것이며, 시상 금액이 큰 만큼 우리 춤계의 창작활동 고취에 큰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무용상으로 자리매김 하리라 생각된다.

한편 발레 부문에는 한국발레협회와 한국발레연구학회에서 수여하는 상이 있다. 〈한국발레협회〉가 1996년 12월 제정한 제1회 한국발레협회상은 한국발레계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인물에게 주는 상으로, 대상, 무용가상, 작품상, 프리아 발레리나상, 당쉬르 노브르상, 신인안무가상, 扶然 전성숙여사상, 신인상, 공로상의 9개 부문별로 나누어져 있다.

이화여자대학교 무용학과 발레 전공 동문들로

구성된 〈한국발레연구학회〉는 한국창작발레의 선두주자로서 발레의 저변확대 및 새로운 무용언어 개발, 그리고 발레의 학술적 정립과 그 토대를 다지기 위해 창립되었다. 1996년부터는 Korea Ballet Academy상을 제정하여 상패 및 부상을 수여하고 있으며, 역대 수상자에는 김민희, 김정수, 주수광, 신정희, 김정순, 조윤라, 이득효, 김화례, 김명희 등이 있다.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사단법인 〈대한무용학회〉는 무용인들의 저술활동과 공연활동을 진작시키기 위해 ‘올해의 학술상, 예술상, 평론상’을 제정하여 매년 상패를 수여하고 있다. 학술상에는 정병호(중대 명예교수), 김옥진(한양대 교수), 이병옥(용인대 교수), 박재희(청주대 교수), 정옥조(숙명여대 교수), 김정수(단국대 교수)가, 예술상에는 임성남(한국발레협회 명예회장), 김백봉(원로무용가), 송 범(원로무용가), 강선영(중요무형문화재), 구분숙(영남대 교수), 김성일(전 국립발레단 지도위원)이 차례로 수상하였다. 평론상은 제1회 이경희(충남대 강사) 이후로는 수상자가 없다.

공연예술지인 『공연과 리뷰』 역시 2000년부터 실제 예술현장에서 왕성한 의욕을 가지고 작업하고 있는 예술가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창작 작업을 적극 고취시키기 위해 무용부문에서 ‘PAF 예술상’과 ‘PAF 안무상’을 신설하였으며, 2003년에는 뛰어난 활약을 한 무용가를 대상으로 ‘제1회 PAF 연기상’을 선정하기 시작하였다. 이숙재, 김숙자, 김영희, 손인영 등이 예술상 수상자였으며, 안무상은 이윤경(한국컨템포러리무용단/ 더블 웨이), 장

은정(한국컨템포러리무용단/ 속도를 줄이시오), 전 순희(디딤무용단/ 에클립스), 안주경(현대무용/ 구지 연가), 송미경(현대무용/ 소쩍새는 새벽을 노래하지 않는다), 배정현(한국무용/ 물푸레나무), 고정연(한국무용/ 두 개의 자화상), 신은주(배김새/ (木)), 김은희(밀물현대무용단/ 빨간 비둘기), 우현영(포즈댄스씨어터), 류석훈(댄스컴퍼니 더 바디), 박호빈(댄스씨어터 까두) 등이 수상한 바 있다. 연



올해의 예술상(무용) 우수 선정작품, 안애순 무용단의 ‘원’

기상 수상자는 현대무용가인 박소정과 은혜진, 최원철, 한국무용가 김미애 등이 있다. 모든 수상자들에게는 소정의 상패와 상장이 수여된 한편, 무용전문지인 『춤과 사람들』도 2003년부터 평론상과 예술상을 제정하였다.

본격적인 학술상으로는 1999년부터 〈한국무용교육학회〉가 수여하는 무용학술상(제1회: 임혜자, 한혜리, 제2회: 변재경, 제3회: 유학자, 유미희)과 무용연구교사상이 있다. 이들 상은 무용학 발전과 연구에 공을 세운 무용이론 연구자에게 주어지며 상패 및 소정의 연구비가 지원된다. 1999년 창립

된 〈한국무용과학회〉도 2000년도부터 무용학 발전을 위해 학회상을 제정하여, 공로상, 연구상, 최우수 논문상을 수여하고 있다.

〈한국무용예술학회〉는 신진 연구인력의 양성과 무용학도들의 진취적이고도 폭넓은 학문적 연구를 장려하기 위하여 학회논문집에 수록할 논문 중에서 한 편을 우수논문으로 선정하여 상금 1백만 원을 시상한다. 2002년도 제1회 우수논문상은 「북한의 자모식무용표기법의 창안배경과 실체연구」를 발표한 성기숙에게 돌아갔다. 이외에도 2002년 말에 창립된 〈한국무용사학회〉는 2004년 정병호 교

수에게 학술상을 시상하였고, <한국미래춤학회>도 무용학술상, 무용발전공로상 등을 수여하고 있다.

이처럼 무용 부문 단독으로 시행되는 무용예술상은 모두 13개에 이른다. 이 밖에 다른 예술장르와 공동으로 시행되는 상으로는 문화관광부의 '올해의 젊은 예술가상' 과 '예술가의 장한 어머니상', 문예진흥원의 '올해의 예술상', 한국예술평론가협회의 '올해의 최우수 예술인상', 예술 발전 위원회의 예술상 등이 있다. 이들 상은 대부분 상금이 없이 수여되는 것이 특징, 무용교육학회와 무용예술학회에서 수여하는 상과 무용예술상만이 상금이 수여된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올해의 예술상을 중심으로

무용 부문에서 수여되는 각종 상은 우선 그 종류나 성격 면에서 다양하지 못할 뿐더러 수상자 선정에서의 투명성 부족으로 상의 권위가 그리 높지 못하다. 특히, 관련 분야 무용가들로 이루어진 단체들에서 수여하는 무용상의 경우 제대로 된 심의과정을 거쳐 수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수상, 마치 나눠주기 식의 시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눈총을 받고 있다. 곧 회원들의 실적 쌓기를 위해 상이 남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에 <춤 평론가회>에서 수여하는 춤 비평가상은 한 해 동안 춤 현장을 지켜본 춤 평론가들이 토론을 거쳐 수상자를 선정한다는 점에서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월간 전문지인 『뭉』지에서 시행하는 무용예술상의 경우도 무용수상과 무대 예술 부문도 포함시켜 한 해 동안 가장 두드러진 활약상을 펼쳐 보인 무용계 전반에 대한 부문을 시상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무

용 교육학회에서 시상하는 무용교사상은 무용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여한다는 점에서 각각 그 차별성을 인정받고 있다.

현재 춤계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무용상은 지난해 처음 제정된 '올해의 예술상' 이다. 한국 문화예술진흥원이란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데다 최우수 작품상 1개와 우수 작품상 2개 부문에 각각 5천만 원, 3천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는 데다 최우수 작품상의 경우 재공연시 5천만 원의 별도 제작비가 지급되는 등 우선 상급 액수에서 절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다수의 춤 평론가들을 포함, 모두 11명의 심의위원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도 상의 권위를 높여주고 있다. 2004년 '올해의 예술상' 무용 부문 수상결과는 선정 단체 모두가 전문 무용 단체로 최근 춤계에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흐름 (전문 무용단을 중심으로 한 우수 작품 제작 현상이 몇 년째 지속되고 있는 점)을 그대로 반영했다는 점에서 춤 제도권의 재편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올해의 예술상은 공연 작품이 하나의 '상품' 으로 인식시키는데 기록적 역할을 했다. 좋은 작품, 완성도가 높은 작품만 만들면 얼마든지 '상품' 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춤 단체나 안무가들에게 불어 넣어주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올해의 예술상은 몇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기도 했다. 따라서 무용 부문의



올해의 예술상(무용) 최우수 선정작품을 수상한 김윤규 무용단의 '숫나기'

<표3> 한국발레협회상

횟수	년도	대상	무용가상	작품상	프리마 발레리나상	당쉬르 노브르상	신인 안무가상	扶然 전성숙 여사상	신인상	공로상	감사패
제1회	1996	임성남	김학자	-	최태지 문훈숙	문병남	-	-	김용걸	엄영자 김종남	이내훈
제2회	1997	김정욱	김성일	김민희	김명순	이원국	-	-	강예나	조승미	-
제3회	1998	김학자	진수인	-	김인희	박재홍	-	-	김지영	조숙자 신미경	-
제4회	1999	김성일	서정자	-	박선희	강준하	-	-	김창기 임혜경	김정수 이득효	-
제5회	2000	엄영자	조승미	진수인 박인자	연은경	박재근	-	-	김주원	김민희 백영태	-
제6회	2001	서정자	김민희	장선희	정미란 김지영	황재원	-	-	장운규 김세연	도정님 최태지	-
제7회	2002	진수인	김정수	김복선	임혜경 김주원	김용걸	송성호	김세종	황혜민	김학래 박경숙	강경렬 정진덕
제8회	2003	김민희	이득효	김화래	김세연	장운규	지우영	김진아	홍정민 전효정	이상만	이세웅
제9회	2004	최성이	박인자	백영태	황혜민	엄재용	김지영	류경훈	윤정진 김성훈	김혜식 문영철	서정숙

경우 다음과 같이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안이 조치되어야 한다.

우선 최우수상, 우수상 등으로 순위를 매기는 방식을 지양하고 그해 뛰어난 예술성을 보인 작품 3-5편 정도를 선정해 시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일정 수준에 이르지 못할 경우는 당연히 선정 대상 작품의 숫자도 줄어들어야 한다. 다음으로 선정된 대상작품에 대한 후속적인 활용정책, 지원 정책이 연계되어 시행되어야 한다. 지난해처럼 최우수 작품에 단 1회만의 재공연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별다른 생산성이 없다. 우수 작품의 경우 현행 시행하고 있는 로또복권기금의 전국문예회관 순회공연 사업 등과 연계, 지역 순회공연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든지 각종 국제 무용축제나 서울 무용제, 전국 무용제 등 문예진흥원의 지원금이 적지 않게 지원되는 큰 축제에도 적극 참여되도록 공연 기회를 많이 확보해 줄 수 있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심의위원들의 경우 공연작품을 직접 볼 가능성이 높은 춤평론가들 위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미 공연된 작품을 대상으로 한 선정인 만큼 공연을 직접 보고 심의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자격요건을 갖추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문화예술지원제도는 문예진흥원의 문화예술위원회로의 전환을 기점으로 그 거품이 점차적으로 거두어져야 한다. 문화예술계, 무용계도 예외가 아니다. 동호인들이 모여 제대로 된 심의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실적 높여주기 형태로 남발하는 각종 무용상의 운영 역시 없어져야 할 거품현상이다. 새로운 시행사업 역시 어떤 결과물의 도출보다는 그 결과물을 제대로 활용, 시너지 효과를 높이거나 부가가치를 놓일 수 있는 보다 전략적인 방안이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지난해 화제가 된 '올해의 예술상' 은 반드시 보완책이 뒤따른 후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